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

경희대학교 손옥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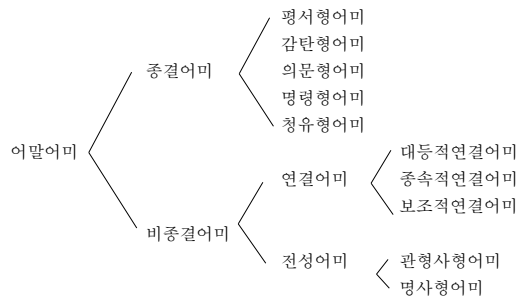
<목차>

- 1. 머리말
- 2. 선행연구
- 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 3.1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목록 및 빈도
 - 3.2 변인에 따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
 - 3.3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
- 4. 결론
- * 참고문헌

1. 머리말

한국어는 교착어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서술어를 실현하는데, 이때 어간은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게 된다. 다양하게 발달한 한국어의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비종결어미는 다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로 나뉜다.¹⁾ 이 가운데 연결어미는 비종결어미로서 단어나 구, 문장 등을 잇는 연결의 기능을 하지만 의미와 기능이 바뀌어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로의 쓰임은 한국인들의 실제 발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인 화자는 구어에서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나 연결어미 뒤에 '요'만 첨가해

1) 남기삼·고영근(1993)



문장을 끝내는 발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인처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수·학습되어야 하는 항목이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교수되지 않거나 교재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인들의 발화와 다소 동떨어진 발화를 하거나, 학습한 것과 모국어 화자들의 발화가 달라 혼동을 겪는 원인이 된다.

김태엽(2000)은 비종결어미의 문법 기능이 전용되어 종결어미화되는 형태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어미 형태를 더 이상 교수하지 않거나 연결어미의 기능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종결어미의 범주에서 연결어미와는 별개의 것으로 교수해야 할 것이다. 또 모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의 목록을 뽑고, 각각 어미의 의미와 기능을 학습 단계별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기능을 가져 종결어미화 되는 현상에 대해 실제 한국인들의 발화를 토대로 객관적 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국어학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논의들을 바탕으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조건을 규정짓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를 우리의 실제 언어 생활이 반영된 구어 자료²⁾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3회 분량의 드라마 대본과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원시 발음치 전자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여 연결어미지만 종결어미화 되어 나타나는 어미의 빈도를 산출해 목록을 만들고, 이것이 성별이나 연령 등의 화청자 변인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대화 인접쌍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어능력시험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양상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그동안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와 관련된 논의들은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국어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지선(2006)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다.

종결어미는 모든 상대 높임법에 걸쳐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한 문장이 종결형이 되게 하는 기능을 띠고 있는 반면, 연결어미는 각각의 어미들의 연결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문장 안에서 단어, 구 단위,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

2) 본 연구의 주 분석 대상이 되는 TV 드라마 대본은 실제 구어 전자 자료는 아니지만 현실을 재연한 것으로 우리의 실제 언어 사용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것 또한 구어로 간주하겠다.

다. 그러나 일부 연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쓰여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김태엽(1998)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종결어미가 아닌 다른 어말어미로 기능하던 형태가 문법 기능의 전용에 의해 종결어미로 기능하게 되는 것을 문법화의 한 양상으로 보아³⁾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 하고, 이런 비종결어미에는 종속 연결어미, 대등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명사형어미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 비종결어미가 문법 기능의 전용에 의해 종결어미로 바뀌는 과정을 화용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상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

- 가. 문장 구조의 축소
- 나. ⇒ 문법 기능 이전
- 다. ⇒ 끊어짐의 수행-억양 없힘
- 라. ⇒ 문장종결 기능 획득

유현경(2003)은 이러한 현상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으로 보고, 주로 후행절의 생략이나 선행절과 후행절의 도치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모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지 구체적인 환경을 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경우 이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이 명령문과 청유문을 제외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의 세 가지 서법으로 실현 가능하며⁴⁾, 상대 경어법 체계의 반말체⁵⁾ 등급을 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지만, 종결어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제약이 덜 해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특징으로 꼽고 있다. 유현경(2003)은 김태엽(1998)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용법을 문법화의 한 양상으로 본 것과는 달리, 종결어미라는 독립된 형태소로 분화되고 있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보다 세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전영진(2002)은 구어체에서 연결어미가 종결형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종결어미로 그 기능과 의미가 바뀌는 경우들에 대해, 이들이 연결어미에서 어떻게 종결

어미로 바뀌는지 그 과정과, 연결어미였을 때 가지고 있던 의미를 종결어미로 쓰인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새로운 뜻으로 바뀌었는지를 단순형태와 복합형태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현경(2003)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 주로 후행절이 생략되거나 선행절과 후행절이 도치되는 과정을 통해서라고 했으나, 전영진(2002)은 유현경과는 달리 종결형으로 쓰인 연결어미 가운데 뒷절이 생략되어 언제든지 연결어미로 회복 가능한 것은 연결어미라 보고 이것을 ‘연결어미의 종결화’ 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뒷절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완전히 기능과 의미가 변화된 것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 하고 종결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즉 연결어미가 본래 가지고 있는 뜻과 기능을 잃고 새로운 뜻과 기능을 수행하고, 종결어미로 바뀌어 연결어미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 정의했다. 전영진(2002)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를 문법화 현상의 하나로 보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되려면 문장을 끝맺는 기능 이외에 연결어미가 가지는 뜻과는 다른 뜻이 쓰여야 하며, 종결어미가 갖추어야 할 서법과 억양, 화자의 말하는 태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면 하지선(2006)은 한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선(2006)은 한국어 교재에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종결어미나 연결어미에 대해서도 그 개념과 명칭을 일관성 없이 나타낸 점, 검증되지 않은 문법 범주 체계를 보이는 점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모국어 화자의 실제 구어 담화와 한국어 교재를 통해 종결기능 연결어미의 쓰임과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종결어미의 교수-학습 모형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한국인 화자들이 많이 쓰는 종결기능 연결어미의 유형과 빈도를 드라마 대본과 인터뷰 자료, 말뭉치를 통해 조사하고, 한국어 교재 4종류를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용 종결기능 연결어미의 유형을 선정하였다. 하지선(2006)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에서 의미 변화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모두 바뀌어야만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김태엽(1998)의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 마지막에 ‘의미기능 변화’라는 항목을 추가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로의 쓰임 현상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 명명하겠다. 또 이것이 단순 연결어미인지 종결어미로 전성된 연결어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정리한 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만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겠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첫째,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연결어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며, 셋째, 문장의 끝에서 평서

3) 김태엽(2000)은 Hopper(1991)에서 제시한 문법화의 다섯 가지 원리, 즉 증위화의 원리, 분화의 원리, 특정화의 원리, 의미지속성의 원리, 탈범주화의 원리 가운데 분화의 원리에 대한 해석을 좀더 확대하여, 하나의 문법 형태가 본디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즉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것 또한 분화의 원리에 의한 문법화 현상으로 보자고 주장하였다.

4) 단, 연결어미 ‘-도록’은 명령형 어미로도 쓰이기도 한다.

가. 내일은 꼭 학교에 오도록.

5) 반말은 주로 말합이와 들음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데, 유현경(2003)에서 제시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되는 주요 기제인 ‘생략’과 ‘도치’가 주로 입말에서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관적 장면에서 일어나는 담화적인 기제이므로 반말의 장면적 특성과 맞아떨어진다.

형, 감탄형, 의문형 등 다양한 서법으로 실현되고, 뱃찌, 상대 높임의 어미 체계, 특히 ‘-요’와 결합이 가능하며, 다섯찌,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이 가능한 것을 삼켰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1>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를 위한 조건

기능	문장 종결 기능
의미	연결어미와는 다른 의미로의 전이
서법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등으로 실현
높임법	반말, ‘-요’형태로 실현
제약 정보	선어말어미와 결합 가능 ⁶⁾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과 일치하는 예문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목록을 뽑고 빈도를 제시한다.
2. 화자와 청자의 변인에 따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의 양상을 분석한다.
3.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반영된 정도를 조사한다.

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3.1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목록 및 빈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은 구어, 특히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상관적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목록을 뽑고 빈도를 산출해 내기 위해 드라마 대본 13회⁷⁾분량과 21세기 세종 계획

6)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형태가 모든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는 없지만 연결어미로 쓰일 때보다는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을 덜 받는다. 본고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에 대한 교수·학습이 한국어교육 분야에도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각 형태가 어떤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고 결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7) 드라마 목록은 다음과 같다.
 - MBC 군제이라 금순아 (1999.01.24-2000.10.08) - 6회분
 - MBC 내 이름은 김삼순 (2005.06.01-2005.07.21.) - 2회분
 - MBC 네 멋대로 해라 (2002.07.03-2002.09.05.) - 2회분
 - MBC 변호사들 (2005.07.04-2005.08.23.) - 1회분
 - MBC 불새 (2004.04.05-2004.06.29.) - 1회분
 - SBS 연애시대 (2006.04.03-2006.05.23.) - 1회분

구어 원시 말뭉치 전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로부터 추출한 종결어미로 쓰이는 연결어미의 목록을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 보고, 그 비율도 살펴보고자 한다.

<표2>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목록 비교

A. 국립국어원	B. 유현경	C. 전영진	D. 하지선	E. 손옥현
-는지	-고	-거든	-고 (1)	-는데
-너지	-어/아서	-는데	-는데 (2)	-다고
-거든	-고/고서	-면서	-거든 (3)	-고 ⁸⁾
-라고	-(으)면	-는지	-니까 (4)	-거든
-을지	-(으)는데	-려고	-다고 (5)	-다니까
-는데	-지만	-다니	-어서 (6)	-어/아서
-눈데	-(으)니(까)	-다고	-다니까 (7)	-려고
-다고	-(으)려고	-다니까	-면서 (8)	-더라고
-은데	-(으)러	-다면서	-다면서 (9)	-다며
-니다고	-든지		-는지 (10)	-니까
-자고	-느라고		-다며 (11)	-게
-던데	-거든		-면 (12)	-던데
-냐고	-게		-려고 (13)	-다면서
-다니까	-도록		-지만 (14)	-면
-라니까			-든지 (15)	-다니
-니다니까				
-려니				
-더라니까				

* ()안의 숫자는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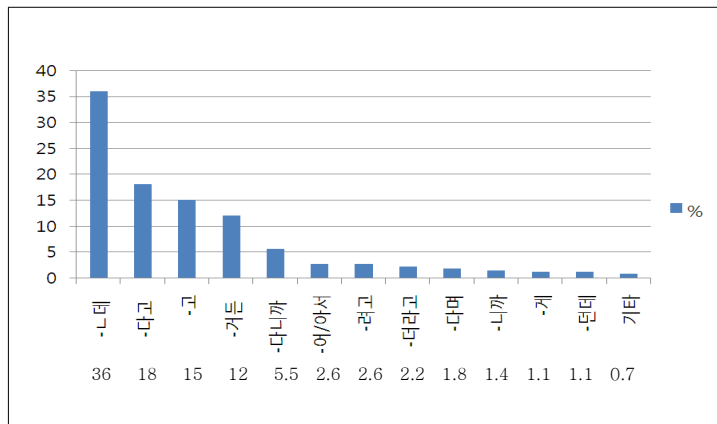
A는 국립국어원(2003)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에서 종결어미로 표시된 항목 중 연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 형태를 골라 하지선(2006)이 재구성한 것으로 하지선(2006)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목록은 종결어미, 연결어미가 합쳐진 것으로부터 종결기능만 하는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빈도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하지선, 2006).

B는 유현경(2003)에서 제시한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로, 이은경(1996)에서 제시한 29개의 연결어미의 목록을 바탕으로 뽑은 것이고, C는 전영진에서 제시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목록이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어떤 기준에 의해 목록을 뽑았는지 나타내지 않고 있다.

8) 드라마 대본과 전사한 자료에 ‘-고’는 대부분 ‘-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고’로 처리하였지만, 이것은 한국인들의 실제 발음에서 ‘-고’보다 ‘-구’의 쓰임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수 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D는 하지선(2006)에서 드라마 대본 30회, 총 900분 분량과 TV 뉴스 인터뷰 텍스트, 신문의 인터뷰 기사 부분, 여성지와 젊은이들의 입말을 그대로 기사화한 길거리 잡지에서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선별하여 텍스트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와, KAIST 말뭉치인 국어 정보베이스Ⅱ의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사용 빈도를 알맞은 비율로 산정한 결과 나온 것으로 ()안에 든 숫자는 순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목록 추출에 사용된 자료의 비율로는 KAIST 말뭉치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어와 구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구어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E는 필자가 드라마 대본 13회 분량과 21세기 세종 계획 구어 원시 말뭉치를 분석해 추출한 것으로 총 273개의 예문에서 뽑은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목록이다. 이들의 비율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형태 목록은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에 모두 일치하는 예를 찾아 추출한 것으로, 앞선 연구들의 예보다 좀더 객관적으로 뽑고자 하였다. 그러나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가 연결어미와는 다른 의미로 전이된 의미를 갖는다는 조건은 의미가 문맥과 상황 속에서 작용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분리하기에 모호한 면을 보였다.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니테’가 연결어미일 때는 주로 화제나 주체의 배경을 설명하거나 대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종결어미일 때는 단순 서술이나, 완곡한 의사전달, 반응의 기다림⁹⁾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배경의 설명과 단

9) 하지선(2006).

순 서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아서’와 ‘-니까’의 의미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1)의 예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방문에 노력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 장면은 어떤 선행발화 없이 말을 시작하기 위해 이루어진 발화로, 상황으로는 얼마든지 의미를 추측할 수 있지만, 연결어미일 때 이유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으로 보아야 할지 그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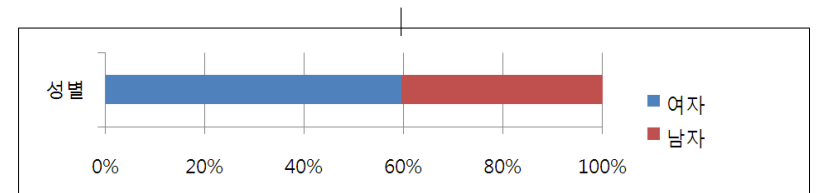
(1) 금순: 밖에서 들으니까 아버지 목소리두 들리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노소장: 오냐

그러나 연결어미와는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결어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미의 전이가 명확히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후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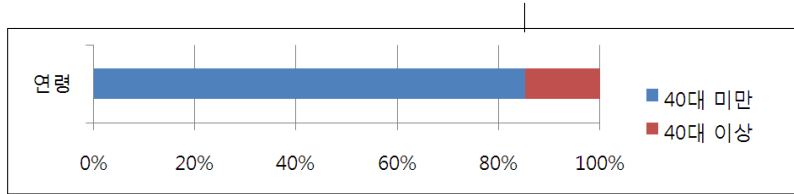
이유를 뜻하는 ‘-니까’도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 종결어미로 쓰일 때의 의미 구분이 불분명하다. 정연희(2003)에서는 ‘-니까’가 종결어미로 쓰이면 ‘재단 언’의 의미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서, 예로는 ‘-다니까’의 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용의 ‘-다니까’를 별개의 항목으로 보고 따로 처리하였고, ‘-다고’, ‘-다니까’, ‘-다며’는 각각 ‘-냐고, -라고, -자고’, ‘-냐니까, -라니까, -자니까’, ‘-냐며, -라며, -자며’의 형태를 포함한 대표 형태로 보았다.

3.2 변인에 따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의 실제 쓰임이 변인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화자 변인을 성별과 연령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연령은 언어 사용 변화가 빠른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층을 비교해 보기 위해 40대를 기준으로 40대 미만과 40대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변인의 비율은 ‘여자:남자’가 ‘3:2’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변인으로는 40대 미만에서 나타난 현상이 40대 이상보다 약 6배 정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이것을 도표화 한 것이다.



<그림2> 성별에 따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



<그림3> 연령에 따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

40대 미만에서도 30대보다는 20대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김태엽(2000)에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형태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듯이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쓰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 관계에 따른 양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와 같이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상대방에게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는 위 목록에서 제시한 모든 형태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¹⁰⁾

(2) 금순: 원장님 저 이번 스텝 모집에 이력서를 냈었는데요.

오미자: 그 애긴 했구.

금순: 떨어졌거든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요. 저 여기서 너무나 일하고 싶었거든요.

3.3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

하지선(2006)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4개 대학의 교재들에 나타난 종결기능의 연결어미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재에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언어에서 만큼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본문에는 나와 있

10) 하지선(2006)은 '-다니까'가 강한 느낌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수에 있어서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어른에게는 특히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표현으로, 실제 대화 분석에서도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 나 사장: 이 자식이 정말? '님'자 안 붙여?

나. 진현: 나 지금 상태 안 좋거든요?

이 대화의 경우 진현은 20대 남자로 50대 여자인 나 사장에게 '-거든요'의 형태를 사용해 발화를 하고 있는데, '-거든요'도 억양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이 경우 나 사장과 진현이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런 발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억양의 사용에 따른 의미 변화 등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한 실제 쓰임을 아울러 교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을지라도 이들에 대해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거나 종결어미로의 쓰임에 대해 언급한 교재가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교재에 나타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기준 없이 교재 집필자 임의로 되어 있었고, 각 교육기관 교재마다 서로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재 분석의 결과는 한국어 교육용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의 목록을 마련해 교재마다 일관성 있는 문법 용어 및 항목과 학습 단계를 제시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교재는 발행된 지 이미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 가까이 된 교재들로, 변화되고 있는 언어 사용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 새로 나온 교재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에 실시된 시험 가운데 듣기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3> TOPIK 듣기 시험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형태

9회 (2006)					10회 (2006)			11회 (2007)		
2급	3급	4급	5급	6급	초급	중급	고급	초급	중급	고급
-니 데 (6)	-니 데 (5)	-니 데 (3)	-니 데 (5)	-거든 (2)	-니 데 (4)	-니 데 (3)	-니 데 (10)	-니 데 (3)	-니 데 (7)	-니 데 (17)
-거든 (1)	-어/ 아서 (2)	-고 (1)	-더라 고(2)	-더라 고(1)		-고 (1)	-거든 (3)	-거든 (1)	-고 (3)	-고 (8)
-니까 (1)	-니까 (2)	-니까 (1)	-니까 (1)	-어/ 아서 (1)		-거든 (1)	-던데 (2)	-고 (1)	-다면 서(1)	-거든 (2)
	-던데 (1)		-고 (1)	-고 (1)		-다면 서(1)	-고 (2)		-거든 (1)	-니까 (1)
	-다고 (1)						-다면 서(1)		-게 (1)	
	-려고 (1)						-다니 까(1)			

한국어능력시험의 듣기 영역에서의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이 3.1에서 제시한 목록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때, 듣기 시험이 한국인의 실제 대화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교재에 반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시 교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습 단계별로 잘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

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의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현상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라 정의하고, 이 현상이 실현되는 조건을 설정해 한국어 구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가운데 의미를 구분하고 명확화하는 데 모호한 면이 있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을 기존의 국어 문법적 측면에서만 다루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 쓰임에 대해 화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변인에 따른 양상은 한국인의 발화 경향에 대해 문화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육 관련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 등 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보겠다. 본 연구의 효과 및 효용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에의 적용에 앞서 한국어 화자들의 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화자와 청자의 변인에 따라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대 한국인의 발화 경향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둘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한국어능력시험에 적용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현상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반면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목록과 화청자 변인에 따른 발화 양상은 앞으로 한국어 수업 현장에는 물론 교재 개발과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서 및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적용을 꾀할 수 있다.

앞서 분석 대상이 되었던 교재들이 출판된 지 오래되어 언어의 사용에 있어 변화되는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점은 다음 연구에서 최근에 새로 출간된 교재들을 분석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해 논의했던 연구들에서 제시한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의 목록을 바탕으로, 이것을 하나의 문법 현상으로 기능과 의미, 제약, 실제 사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한국어 교사들과 교재를 만드는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수용하고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영근(1974), 현대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권재일(2004), 구어 한국어의 의항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수정(2003),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호, 한국언어학회.
- 김태엽(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 33호, 어문연구학회.
- 박나리(2004), 한국어교육문법에서 종결어미 기술에 대한 한 제안, 이종언어학 26호, 이종언어학회.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호, 한글학회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자 외(2006), 어미·조사 학습자용 사전. 한국문화사.
- 임흥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역양, 말 9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전영진(2002), 국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연희(2003), 「연결어미의 의미확장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 하지선(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종결기능 연결어미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